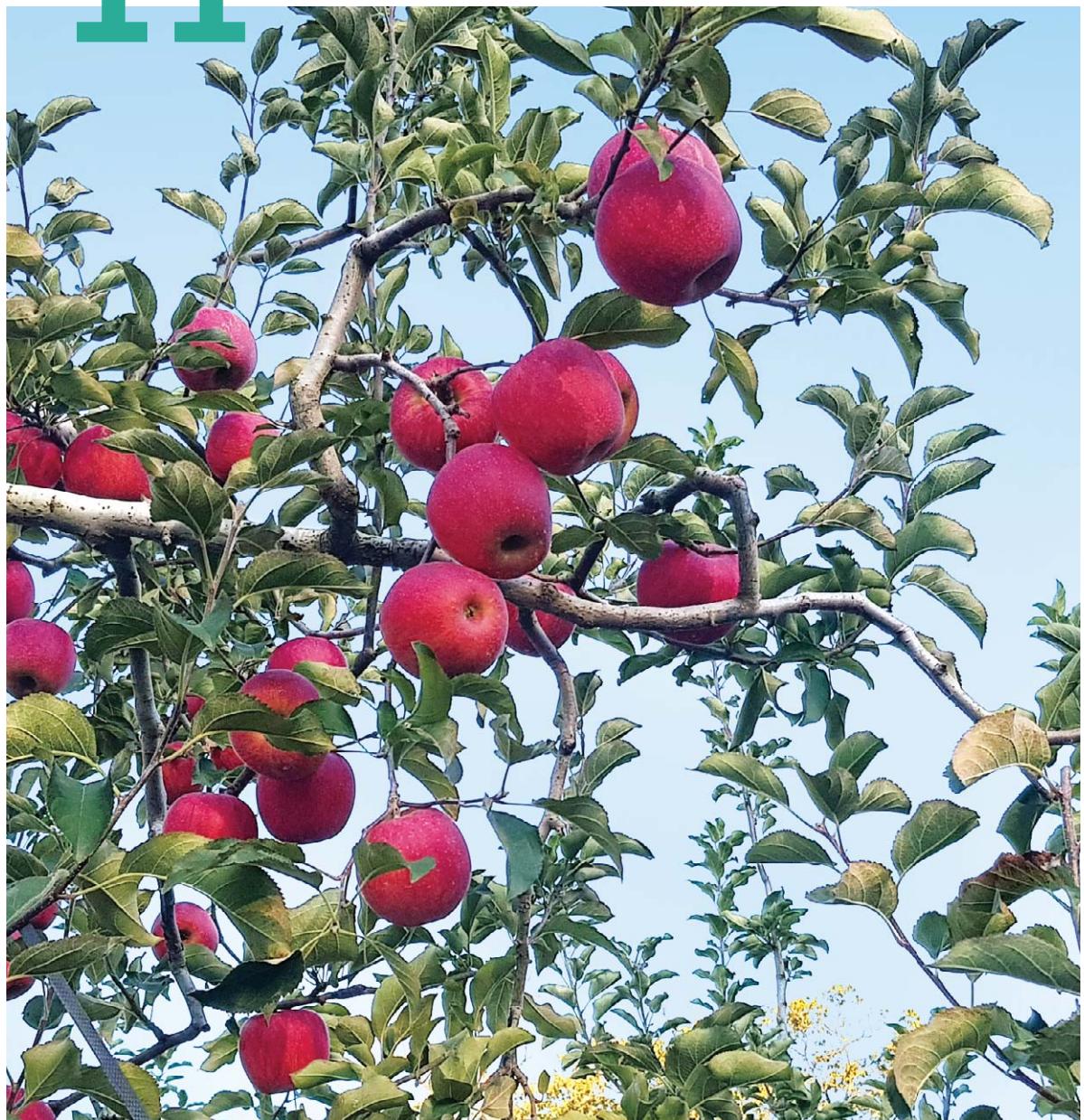


만남

11

2022

통권 58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2022 선교대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사명자

2022 선교대회가 ‘열방으로 행진하라’는 주제로 10월 7일(금)~14일(금) 교회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다.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는 이번 선교대회에서 봉헌한 선교목적헌금을 앞으로 외국어예배센터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교회는 현재 6개국 외국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교회는 또 변화하는 선교환경 안에서 새롭게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문화선교 · 학원선교 · 농어촌 선교 · 군선교 · 해외선교에 힘쓰기로 했다.

사진은 베다니광장에서 열린 네팔예배팀 특별 찬양 후 기념 촬영. (관련기사 4~5면)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설경문 집사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봉사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꾸는 성도 김운성

땅끝까지 이르러 04 2022년 선교대회 성황리에 열려
06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곳, 네팔 아가페 어린이집 고연희

다음세대 09 감사라는 의미 나지선
10 청지기의 삶을 배웠습니다 안태환
12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만드신 악기 김소현

영락의 울타리 14 사랑·감사·겸손 김모세
16 얀 후스, 거룩한 씨앗 임대현
20 훌륭한 외국인 영원한 한국인, 스코필드 선교사 편집부
26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편집부
29 안보 위험 대응에 한미동맹 필수 양인성
32 교회주차장 이용이 달라집니다 자원봉사부
36 고독 구자경
37 노년의 건강관리 박일환

문화광장 40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을 통해 본 기독교와 문화 조두형
43 영성 수업 신대군
44 웹툰 <그냥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김초롱
47 에덴동산-생명의 빛 장순재

교회소식 48 9월 만남주일…‘건강하게 다시 만난 반가움’ 외
52 11월 목회력 /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표지설명



힌남노 태풍등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많았던
와중에도 경북 영주 사과농원의 사과가 발갛
게 잘 영글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신앙도 언제
나 한결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맺는 가을
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꾸는 성도

김운성 위임목사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요엘 2:28~30)

‘남가일몽(南柯一夢)’이란 말을 아시지요? 당나라에 순우분이란 사람이 술에 취해 집 앞 나무 그늘에서 잠들었는데, 어디선가 관리들이 나타나서 “괴안국 임금의 명에 따라 모시려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우분은 그들을 따라 나무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임금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순우분은 남가군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오랫동안 선정을 베풀었고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라국의 침략을 받고 부인도 죽자 관직을 버리고 상경했습니다. 임금은 천도해야 할 것 같아 순우분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린 순우분은 자신이 기대서 잠든 나무뿌리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매우 큰 개미집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개미집은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었습

니다. 문자 그대로 남가군이었습니다. 순우분은 다음 날 다시 그곳을 찾았는데, 개미집은 비에 씻겨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임금의 말대로 천도를 한 셈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생이란 이 꿈처럼 덧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이 언제나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꿈은 중요한 미래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에는 꿈이 미래의 단초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형님들에게 절을 받는다는 요셉의 꿈,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 칠 년 풍년과 칠 년 흉년을 예고한 애굽 왕 바로의 꿈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를 거쳐 종말에 이르는 거대 담론의 역사가 담겨있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크게 꿈꾸고 조금씩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의 뜻에 근거하여 꿈을 꾸며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앞의 요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말씀에 드러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하셨는데, 장래 일, 꿈, 이상은 모두 미래를 향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거나, 현재에 고착되지 않고, 미래를 말합니다. 그는 아무리 과거와 현재가 훌륭했어도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에 붙들린 성도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새벽에 나가 옆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대지 140여 평의 작은 예배당이었지만, 저는 그 보다 수십 배의 예배당을 꿈꾸었습니다. 꿈에서 수십, 수백 번 설계도를 그리고 다시 그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꿈을 꾸는 데는 비용도 들지 않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꿈을 꾸다 보니 예배당과 비전 센터인 홀리조이(Holy Joy)센터를 짓게 되어, 땅과 건평 모두 열다섯 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도 계속 꿈을 꿉니다. 영락교회의 공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째, 베다니홀을 품은 50주년기념관은 다양한 찬양과 말씀, 기도의 집회와 문화 공연의 중심지가 되어 평일에

도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다니광장은 늘 수많은 이가 만나고 담소하는 만남의 뜰로서 직장인들을 위한 공연도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긴 예배당은 영락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역사 기념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2층은 전시관으로, 아래층은 가운데에만 의자를 두어 특별한 예배의 장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사관 일원은 장래를 위한 예배와 교육과 행정을 위한 첨단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성도가 일시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곳에서 예배하고 교육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에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가득한 꿈을 꿁니다. 80주년 비전위원회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미래를 향해 작지만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길 기대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꿈을 꾸었으면 합니다. 꿈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꿈은 조금씩 현실로 바뀝니다. 그게 꿈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꿈꾸고, 조금씩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도 꿈을 꾸는 성도로 산다면 멋질 것 같습니다. **만남**

2022년 선교대회 성황리에 열려

10월 7일~14일까지 〈열방으로 행진하라!〉 주제로 2022년 선교대회가 진행되었다.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가 주관한 이번 선교대회는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신명기 1:7)”는 말씀을 바탕으로 했다.



뮤지컬 공연 첫날 7일(금)은 문화선교축제로 베다니홀에서 문화선교부 위트니스팀의 창작뮤지컬 〈평양 1866〉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1866년 대동강을 따라 평양에 들어온 제너럴셔먼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소재로 삼았다. 당시 조선이 쇄국정책으로 통상이 봉쇄되었던 터라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원으로 승선했다. 그는 평안도 관찰사 박춘권에게 참수당하면서 성경을 전했다고 한다.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보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다.



선교주일과 학원선교대회

9일 1~5부의 주일예배는 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졌으며 찬양예배는 고형욱 목사(꿈꾸는 교회)가 말씀을 전했고 대광, 영락, 보성 학원의 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어려움에 처한 학원 선교 현장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이 회복되길 기도하며 선교 사명을 다짐했다.

선교부흥회 12일(수)~14일(금) 저녁 7시 본당에서 열린 선교부흥회는 강사 안교성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가 말씀을 전했다. 첫째날 ‘예수님의 선교: 선교명령들’ 둘째날 ‘교회의 선교: 구심성과 원심성’ 셋째날 ‘하나님의 선교: 급변하는 선교 환경과 과제’를 전하며 실효성 있는 선교전략을 수립해야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대적 사명을 잘 깨달아 시대에 맞는 선교 사역에 힘써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권면했다.



선교바자회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바자회는 12일(수)과 14일(금) 열렸다. 여전도회 주관으로 의류, 잡화, 먹거리, 기증품 등을 판매하며 성황을 이루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선교특강 13일(목)에 드림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김정대 군종목사(중령, 7보병사단 군종참모), 김서영 선교사(아프리카 잠비아 네트워크선교사), 이수정 대표(IT-스마트선교사)가 강연으로 선교 비전과 사역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선교대회의 목적헌금은 세계 열방으로 행진하라는 표어에 맞추어, 거주하는 외국인(러시아, 중국, 몽골, 네팔, 베트남, 미얀마)이 모국으로 돌아가 자국민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돋는 외국어예배 선교센터 마련에 전액 쓰여질 예정이다. **만남**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곳, 네팔 아가페 어린이집

네팔은 ‘신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인구가 3천만 명에 신은 무려 3억 3천이 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14만 7,180㎢로, 남한 면적의 1.5배쯤 되는 국토를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 세계 최고 높이의 에베레스트산이 있는 히말라야산맥 속의 산악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트레킹을 하러 오는 이나라는 하루 6시간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2015년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중 코로나19로 또다시 어려움이 가해진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영락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도 하면서 직장(순천향 대학교 병원 임상병리과)에 다니며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10살, 12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직장생활도 오래 했으니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굶는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선물꾸러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분을 볼 때마다 어려움을 들어주고 가는 길에 빈 손으로 보내지 말며 작은 거 하나라도 정성스럽

게 주면 얼마나 기쁘겠
냐 하시는 이야기를 들
으면서 꿈에서 깨어났
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디
든 가라 하시면 가서 봉
사하겠습니다, 다만 저
희 자녀들은 하나님께
서 책임져주십시오.’라

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길을 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저는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결핵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어 어렵고 낙후된 네팔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2000년 네팔에 의료 사역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기도 중 가난한 곳의 어린아이들을 보여주셔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힌두신앙이 뿌리 박혀 있는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모태 신앙 안에서 자라난 것을 생각해서 신생아 양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혼 모가 키우지 못한 아기,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



고연희
네팔 네트워크 선교사



아가페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아가페어린이집 방과후 공부반 교실

체중이 1.5kg 안팎인 미숙아, 병 때문에 부모가 포기한 아이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아들·딸 8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것난아기부터 키운 아이가 벌써 10살, 17살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아가페어린이집(Agape Children Home)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저희 사역은 2021년 5월 랄리구라스 호스텔(Laliguras Hostel)로 이름을 바꿔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삭(남 17세 11학년), 에스더(여 16세 10학년), 영이(여 15세 10학년), 은혜(여 15세 8학년), 진이(여 13세 7학년), 수지(여 12세 7학년), 지혜(여 10세 3학년), 사랑(여 10세 3학년)입니다. 가정 사역으로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아가페교회 건축 및 방과후 공부반 사역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한 명의 아기가 아프거나 울기 시작하면 함께 울기 시작하여 귀가 아플 지경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 한 지역에서 오래 사역할 수 없어서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현재 사는 집에서 네팔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2017년 11월에 블록을 쌓고 양철지붕을 올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주일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또는 편모편부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2시간 공부를 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방과 후 공부반 사역>을 7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선생님과 5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11, 12학년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가페 교회에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역

한국에서 주관하는 WTIT(World Transfor of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어려운 나라에 컴퓨터센터 100개 설립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저희 아가페홈이 선정되었습니다. 아가페 교회 옆방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선생님을



아가페교회 주일학교 예배



고연희 선교사, 영이, 양영자 감독과 함께(왼쪽부터)

모셔와 일주일에 2번 수업을 진행하며 방과 후 공부반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컴퓨터가 부족할 정도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간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Laliguras Hostel에서 성장한 어린이 중 이삭이와 영이를 소개합니다.

이삭(남 16세 고2)은 태어난 지 13일 만에 저희에게 왔습니다. 첫 번째 주신 아기라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요! 지금은 한국어, 영어, 네팔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중국어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보고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피아노를 배우고 여러 가지에 열심인 아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를 가지 못하는 기간에는 혼자서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싶다면서 독학으로 고대 상형문자를 읽으면서 저에게 설명하고 히브리어를 읽어 내려갑니다. 너무 하고 싶은 일이라며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하지요. 이삭이 소망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이(여 14세 고1)는 태어난지 3일 만에 왔습니

다. 늘 남자 아이들과 축구하고 운동만 하던 아이가 지금은 예쁘고 멋지게 자라나서 탁구 선수가 되겠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학업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네팔 전국 주니어 탁구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여러 팀이 영이를 영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오지만,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서 네팔 국가 대표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2019년에 양영자 감독(88올림픽 금메달리스트)께서 네팔에서 탁구하는 아이들을 초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영이(11세)가 잠깐 한국을 다녀가는 기회가 있었지요. 한국말을 하며 운동하는 것을 보시고 관심을 갖고서 이번에 다시 초청해주시고 영락교회 선교부를 통하여 3여전도 회가 기도하고 후원해주셔서 한국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찾아가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차 우리 <아가페 홈>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만날**

감사라는 의미



사전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봅니다. 감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라고 합니다. 고마움을 느끼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언가’를 생각해봅니다. 그 무언가는 나를 구성하는 환경이나 소유일 수 있겠죠. 원하던 그것들이 채워질 때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환경은 변하며 소유는 순간의 기쁨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감사들은 마치 사진처럼 순간순간으로 남겨져 있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주신 말씀은 내가 존재하는 한 영원하기에 제 영혼에 새겨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삶이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에 신음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문제는 타인이 보는 제 삶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시달렸습니다. 인생은 ‘잘 살아 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부양하고 또 누군가에게 부양되어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았습니다. 아직도 명쾌한 대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타인 시선의 제 삶은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속자(救贖者)이신 하나님은 저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세상 속에서 ‘저를 구속(해방)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 마음속 깊은 곳 신음을 들으셨던 그분의 존재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나지선 성도
청년부 꿈꾸는 땅
청년회 해외선교부 차장

청지기의 삶을 배웠습니다

– 『다윗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읽고



안태환 성도 _ 고양·파주교구, 신입교사교육 5조

서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인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하는 ‘말씀’은 구멍이 승승 뚫린 상태로 꽈부분적이고 불안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꽈 최근에야 겨우 깨닫게 되었다.

처음 이 책 제목을 읽었을 때, 여기 적혀 있는 다윗이 대충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다. 워낙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렇기에 교사교육반에서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다윗을 제대로 몰랐었기에 더욱 책에 흥미가 갔던 것 같다. 또한 이 책의 ‘들어가는 말’을 통해 다윗이 성경 시편을 절반이나 기록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면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그토록 많이 써 내려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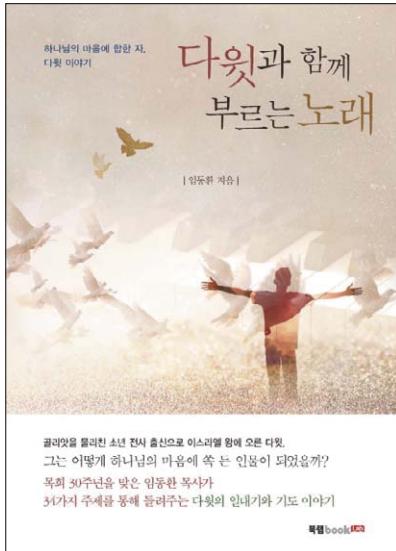
책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그리고 다 읽은 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다윗이 정말 존경스러웠으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는 사람이란 실로 다윗 같은 사람이 구나’ 하며 감탄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이런 책을 읽을 기회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 나의 마음 깊이 다가온 몇몇 내용의 느낌과 경험을 독후감으로 남기고자 한다.

본론

1.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

나는 평소에 나의 명철에만 의지하며 어리석게 사는 일이 꽈 많은 것 같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대부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특히 감정적으로 휩싸여서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할 때면, 내 감정을 따라가기에 만 바빠진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고 한다. 아



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다. 다윗은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분노에 이끌리어 전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쟁하기를 원했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 정말 존경스러웠다. 자신의 감정이나 명철보다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리고 고백하고,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나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2. 청지기로 살아가며 베푸는 삶

청지기라는 말 자체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보았지만, 그 뜻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이 책을 보며 청지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보자마자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자는 말씀이었다.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가지려 애써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부질없는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이 책이 내 안에서 끌어 올렸다. 항상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한다.

3.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진영 안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이 부분도 나에게 큰 감동을 준 부분이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은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빨리 쾌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샘솟는다. 아마 다윗도 순간적으로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턱 끝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다. 사울을 죽이면 도망쳐야 하는 고통에서 해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쾌락, 순간적인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다윗의 최우선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 얻는 쾌락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 였던 것이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다윗 자신을 세우실 것이라 믿는 확신도 이러한 선택에 한몫하기도 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항

상 찬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노래했었는데, 이런 태도가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고 싶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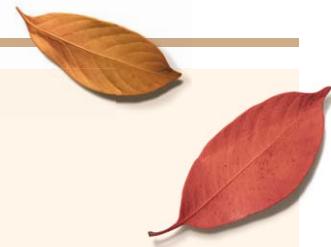
나는 연약하다.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었지만 내심 열등감과 질투도 생기는 기분이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열등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다윗이 너무 멋있었고 부러웠다. “난 왜 저렇게 살아가기

가 너무나도 힘들까?” 하며 나를 은연중에 깎아내린다. “나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내심 불안해하며 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 나의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련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으며 한없이 연약한 인간일지도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날마다 더욱 다윗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한다. **만남**

우리 모두는 주님이 만드신 악기

– 『가문비 나무의 노래』를 읽고



김소현 성도
마포·영등포교구
신입교사교육 4조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나와 똑같아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소명과 장점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 중

『가문비나무의 노래』는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인 마틴 슬레스케가 쓴 책이다. 이 책에는 바이올린 장인으로 살아온 그의 삶과 그 삶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담겨있다. 자기의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온 그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울림을 지닌 악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때로는 삶의 풍파에 흔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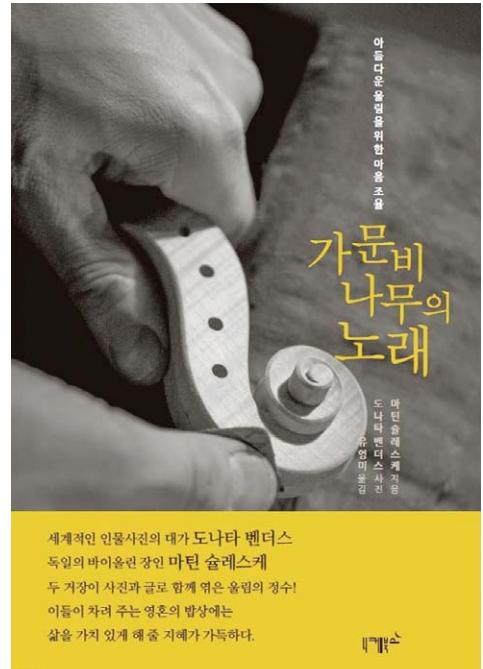
넘어질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악기라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떠오른 이미지는 묵묵히 삶의 길을 걸어오던 남성이 자기 삶과 그 시간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남성의 손가락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자가 깨달은 삶의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으로 귀결된다. 그는 바이올린 장인으로서 살아온 삶 속에서 우리를 조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악기로서 공명하는 소명의 삶을 발견한다.

이러한 점이 내게는 인상 깊게 다가왔다. 비록 죄와 악이 가득하더라도, 여전히 아름다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지혜를 깨달아 알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마음속에 희망과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서, 다음으로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살아야 할 삶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무한하신 창조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도 온 세상에 영광이 넘쳐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희망과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가문비나 무처럼 그저 내 할 일을 하며 기다려야겠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순간 나를 가장 아름다운 악기로 완성해 주실 줄로 믿는다. 아직은 미완성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만의 울림을 내는 악기로 제작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학교 교사로서도 가장 우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명과 울림을 깨달으며 살 때, 교회학교 교사로서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

사랑·감사·겸손

저희 본가 벽 한쪽에 ‘사랑·감사·겸손’이라고 적힌 액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인 이 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가훈은 한 가정의 생활철학의 상징이며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에 대한 교육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 저에게 제일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 집 가훈처럼 ‘사랑·감사·겸손’입니다.

이 시간 짧지만 제 삶에 있어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염두 성도님들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가 봅니다.



김모세 전도사
서초교구
목양부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13)’ 제게 가장 와닿는 말씀 중 하나인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명하는 바울서신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표현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자 병원을 찾았던 어린 시절, 막상 어머니를 보자마자 뒷걸음쳐 베렸습니다. 힘든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어머니의 모습이 초췌하여 어린 저는 놀라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지만, 저 멀리 가버리는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마음속 상처가 생겼을 수는 있겠으나 표현조차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못난 아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들의 모멸, 비방, 팝박, 상처, 고난, 수치 등 모든 멸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것이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할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던 2010년 12월 21일을 기억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른 날보다 특별히 교통체증이 심했던 그 날, 여느 때처럼 길을 건너던 저의 앞으로 한 오토바이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텅…: 감겨있던 눈이 떠졌을 땐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턱뼈가 부러져 수술받았지만, 입원실이 만실이라 다음날 집에 귀가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 홀로 남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고 비참했지만, 이 말씀을 불들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통해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한다면 믿음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 이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완성된 사람이 아닌 부족한 사람을 찾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낫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십 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영락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동안 제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김모세 전도사는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라는 기억이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남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가훈이면서도 저의 삶의 원동력인 ‘사랑·감사·겸손’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또한 믿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히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겸손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만날**

얀 후스, 거룩한 씨앗



그림 1. 체코 프라하 구(舊)시가지 광장의 얀 후스의 동상. 1915년에 프라하 시민들이 세움

최근 직장 일로 체코 프라하를 처음 방문했다. 그때 프라하 구(舊)시가지 광장에서 얀 후스의 동상(그림 1)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었다. 얀 후스(그림 2)는 학자이고 성직자였으며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 개혁을 외쳤지만 화형당한 순교자이다.

1) 학자

얀 후스(Jan Hus)는 1369년 즈음에 체코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신앙심이 독실했다고 전해진다. 경제적으로 궁핍해 구걸하기도 했고 노숙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지만,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해서, 성가대 생활을 하거나 사환처럼 일을 하면서 1380년부터 프라하에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1389년에는 프라하 카렐대학에 입학했다. 카렐대학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얀 후스 시대에는 중부 유럽에서 최고의 대학이었다. 당시 프라하는 신성로마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진은 라틴계, 독일계, 체코계, 폴란드계로 구성되었다. 카렐대학은 당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교류했고, 이 교류를 통해서 존 위클리프¹의 사상과 서적들이 후스에게 전달되었고, 후스는 후에 그의 저서와 연설에서 위클리프의 사상과 글을 많이 인용했다.

후스는 1393년 학사, 1396년 석사를 취득하고 1398년 카렐대학의 교양학 교수와 신학 교수가 된다. 1400년에 성직자가 되고, 1402년에는 카렐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어, 프라하에서 공개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시작한다. 얀 후스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언어학자였으며, 인문학에도 뛰어난 체코 민족을 사랑한 민족주의자였다. 초기 체코어였던 보헤미아어 철자를 개량했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 체코어 성경을 만들고, 체코어 찬송가를 만들어 보급하려고 힘썼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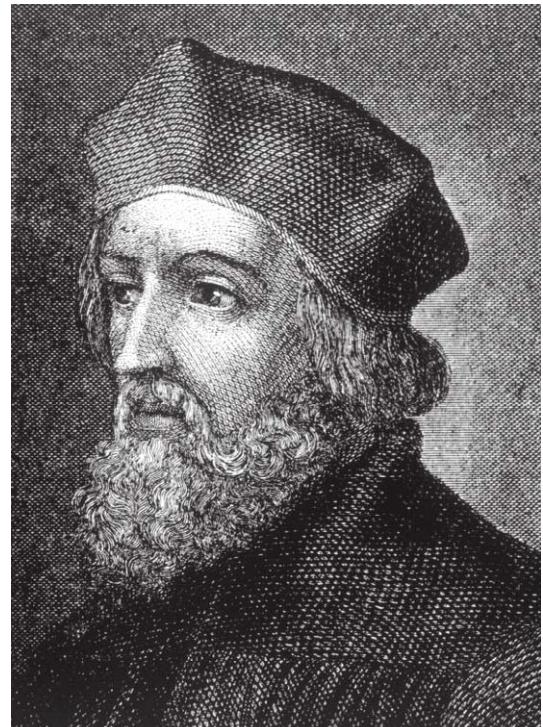


그림 2. 체코 프라하의 얀 후스(1369년 즈음 출생, 1415년 사망).
화형 102년 뒤에 종교개혁의 불씨로 부활함

쳤던 1517년에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95개조 반박문이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내걸린 뒤 2주 만에 신성로마제국 전역에 퍼졌고, 1달여 만에 유럽 전체 지역에 퍼지면서 수많은 지지자의 지원을 받아 루터의 반박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1400년대 초 체코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여서 후스의 주장은 널리 퍼지지 못했다.

2) 성직자

얀 후스는 가톨릭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고 행동한 사제였다. 14~15세기 유럽은 르네상스가 시작하는 시기로 사상, 문학, 미술,

1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 영국의 기독교 신학자/종교개혁가,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단핵하고, 교황의 권력과 교황 중심의 로마가톨릭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래에 있고,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의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해 완성했다.

건축 등 다방 면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역시 성당을 멋지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황은 면죄부를 발행했다. 면죄부는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면벌부' 혹은 '속죄부'라고도 한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죄를 참회하면 사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나 선한 행실을 통해 갚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교황청 재정이 부실해지고, 성당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자 교황청에서는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도·선행과 더불어 현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까지 돈을 받고 거래하게 되었다. 800년경 교황 레오 3세 때 처음으로 시작되어 13~15세기에는 면죄부 판매가 성행하면서 순수한 종교적인 성격을 벗어나는 폐단이 짙어졌다. 당시의 가톨릭은 서로의 이권으로 분열되어 3명의 교황이 공존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 그레고리 12세, 아비뇽 교황청의 교황 베네딕트 13세, 피사 공의회의 교황 요한 23세로, 베네딕트 13세는 물질 욕심과 성적 타락이 극심했고, 요한 23세는 사제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었다. 이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후스는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에 저항했고, 사치를 부리는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교황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시 가톨릭 성당의 미사와 강론이 라틴어로 진행되었지만 후스는 라틴어 대신 체코 언어로 강연했고, 체코 사람들은 모국어로 가슴에 날아와 꽂히는 성서의 메시지에 환호했고 열광했다.

가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 이 구절을 바탕으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받아들였고, 대를 잇는 교황은 모두 예수님이 직접 부여한 '반석의 권위'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후스의 생각은 달랐다.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봤다. 왜냐하면 18절의 '베드로'는 남성명사 '페트로스'로서 움직일 수 있는 바위를 말하고,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명사로서 '페트라' 즉 움직일 수 없는 바위를 말한다고 했다. 이 '반석-페트라'는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마태복음 7:24, 베드로전서 2:4~9)하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는 언제나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잘못된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유다와 같다'라고 설파했다.

당시 가톨릭에서는 성체성사에서 사제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고, 평신도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빵만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후스는 성경에 근거해 처음으로 평신도에게 성만찬 포도주를 나눠주었다. 후스의 설교는 메시지가 뚜렷하며 강하고 논리적이어서, 영적으로 파고드는 좌우에 날선 겸과 같았다고 전해진다.

3) 순교자

얀 후스는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과 같은 고귀한 순교자였다. 1409년부터 가톨릭 교황청의 통합이 시작되면서 피사 공의회의 교황 요한 23세는,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며 청렴하고 순수한 초대 교회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후스를 파문하여 공개적으로 강론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1414년 10월에 열리는 독일 남부 콘스탄츠에서 열리는 공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

은 후스를 처형하려는 교황청의 함정이었다. 그러나 후스는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약속한 안전보장과 교황청 고위 성직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해, 11월 콘스탄츠에 도착했다. 지기스문트는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왜곡되고 조작된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후스를 이단자로 간주하고 체포해 지하 감옥에 가둬 고문했다. 매우 나쁘고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서 낮에는 쉼 없이 걸어야 했고 밤에는 벽에 묶여 있어야 했다. 누울 수도 없었다. 교황청은 후스에게 ‘이단의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 금고형의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이단자로서 성직을 박탈당하고 사형을 당할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통보했다.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후스에게 공의회와 황제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사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이때에도 후스는 자기를 체포한 지기스문트 황제를 향해 종교개혁의 절박함을 역설했고, 황제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실 지기스문트 황제는 후스를 죽일 생각이 없었지만, 콘스탄츠 공의회의 주최가 황제가 아니라 교황청이었기 때문에, 후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으나 방법은 교황청의 권한이었다. 종교 재판소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입장을 변복하면 파문을 면하고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마지막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인이 되신다. 나에 대해 위증한 거짓 증인들이 말한 모든 죄목을 나는 전파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나의 설교와 저서들에 나타난 원리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복음에 대해 거룩한 박사들이 가르치고 해설한 그대로 나는 썼고, 가르쳤으며, 전파했다. 나는 오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거절했다.

화형을 당하기 전에 후스는 ‘오늘 당신들은 1마리의 거위(Husa)를 불에 태우지만, 당신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 1마리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유언을 남겼고, 사람들은 이 백조가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르틴 루터’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후스가 순교하고 105년이 흐른 1520년에 독일인 루터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라고 주장하며 종교개혁의 중심에 섰다. 후스의 순교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 16세기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는 종교개혁을 촉발했으며, 개신교(Protestant)의 태동이 되었다.

프라하 구(舊)시가지 광장 얀 후스의 동상은 1915년에 세워졌으며, 후스가 순교한 날인 7월 6일은 체코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동상 아래부분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기원하라’라는 유언이 새겨져 있다. **만남**

참고문헌

1. 나무위키. 얀 후스
2. 위키백과. 얀 후스
3. 사토마사루. 종교개혁이야기. 바다출판사. 2016.
4. 백성호. 화형대 오른 ‘거위’ 얀 후스, 100년 뒤 ‘백조’ 루터를 예견하다. 중앙일보. 2017. 08. 04.



임대현 집사
성남·분당교구
자원봉사부 서기

훌륭한 외국인 영원한 한국인, 스코필드 선교사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스코필드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Jr) 선교사는 1970년 4월 16일 장엄한 장례식과 함께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사의 영웅들을 위해 마련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로 훈장을 받았고, 1919년 3·1만세운동의 34번째 참여자로 거명되고 있다.

왜 한국은 그를 이토록 존경하게 되었을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조선이 독립을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인 1919년, 한반도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대체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존중하고 한국의 정치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중립의 입장은 견지하면서 교육, 보건, 영적 구원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

지만 스코필드 선교사는 대다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립을 지키거나 침묵하거나, 친일 세력이 되는 것과 달리, 용감하게 한국의 독립 활동에 몸소 뛰어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천했다.

스코필드의 출생과 성장

프랭크 스코필드는 1889년 3월 15일 영국의 워리셔셔 럭비에서 프란시스 스코필드와 미니 스코필드의 네 형제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낳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프란시스는 스코필드가 2살 때 재혼을 하고 더비셔셔 베슬로로 이사하여 클리프 칼리지(Cliffe College)에서 신약성경과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스코필드는 미완성의 자서전에서 아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거지를 집으로 초대해서 빵과 차를 은수 져로 대접하고는 식사가 끝나면 거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거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나는 아버지를 통하여 인격의 숭고함을 배웠다.”

스코필드가 조선과 만난 것은 1897년 여덟 살 때다. 집으로 찾아온 여병현 선생을 만나 조선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인지에 관해 들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스코필드



스코필드 선교사와 한국어 선생 목원홍



스코필드 선교사와 영어성경반 학생들

는 가정 형편이 여의찮아 대학에 가는 대신 취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신대륙 캐나다에서 돈을 벌어 원하던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1907년 1월.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당시 캐나다 농업의 중심지였던 토론토 클라크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어 농장 관리를 배우며 가축들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었다. 토론토대학 수의과 대학에 입학한 그는 여름방학에는 농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열심히 공부해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1908년 여름 과로와 극심한 고열을 앓으면서 소아마비로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재활운동을 하여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학업을 재개했다. 비록 오른쪽 다리는 마

비되었지만, 1910년 수의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온타리오주 보건국에 취업하여 우유 속 세균을 연구하며 토론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13년 앤리스 딕슨과 결혼하고 1914년 모교에서 세균학 강사로 일하게 되었다.

한국 선교사로 파송과 3.1 만세 운동

조선과의 두 번째 만남은 토론토대학 은사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을 통해서였다. 서울 세브란스의학교 학장으로 갔던 에비슨은 1915년 스코필드에게 세브란스에 오기를 청했다. 에비슨 학장은 캐나다 장로교회 해외선교 이사회 맥케이(Robert P. Mackay) 목사에게도 편지를 써서 스코필드 박사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스코필드는 어렸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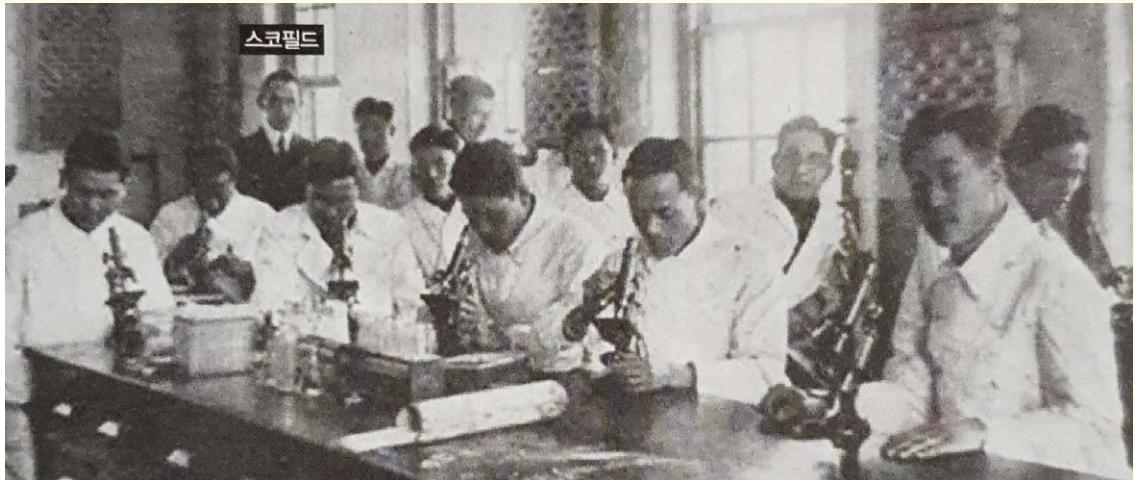
종로거리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는 민중들

영국 베슬로에서 만났던 여병현 선생을 떠올리는 한편, 언젠가는 낯선 땅을 방문해 그곳의 사람들을 돋고자 했던 아버지의 열망을 기억했다. 친구들은 소아마비 장애로 낯선 땅에서 선교사 역이 힘들 것이라고 만류했으나, 그는 “조선에 가겠습니다. 그곳에는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저를 시험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1916년 10월 서울에 도착한 스코필드 박사는 에비슨 학장 부부와 세브란스의학교 교수들, 그리고 이미 50세에 가까운 여병현 선생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았다. 스코필드 박사는 목원홍 선생의 지도로 조선말을 배우는 한편, 수많은 젊은이를 교육하며 영어 성경반을 이끌면서 복음을 전했다. 석호필(石虎弼)이라는 조선어 이름도 가졌다. 스코필드를 음차한 이 이름은 한자 뜻이 중요하다. 석(石)은 굳건한 종교적 의지를 뜻하고 호(虎)는 호랑이, 필(弼)은 ‘돕는다는 뜻’을 마음으로 담았다. 하지만 정착이 쉽지는

않았다. 아내 앤리스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 질환으로 첫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1917년 5월 토론토로 돌아갔고, 스코필드 선교사는 홀로 남아 소의 질병에 관한 연구와 강의에 대한 헌신을 이어갔다. 장로회 선교 이사회는 그를 두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선교사”라고 했다.

스코필드는 학교와 저녁 성경 모임에서 만난 조선의 젊은 민족주의자들에게 “아시다시피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고, 영국인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국의 해외 식민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떤 국가도 식민지를 영원히 보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1919년 2월 5일 세브란스의전(1917년부터 의학전문학교로 승격) 학생 이갑성(33인 민족 대표 중 한 명)이 심란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저녁 늦게 스코필드 선교사를 찾아와 중요한 일을 부탁하러 왔다고 했다. 이갑성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원칙 뉴스를 전하면서,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의에 힘입어



세브란스 의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학생들과 함께

1919년 3월 1일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평화 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만세 운동을 준비 중인 민족대표들은 스코필드 선교사가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간청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이끈 33명의 민족대표와 합류하여 3·1만세운동의 ‘34번째 참가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훗날 이갑성은 “스코필드 선교사는 만세 운동 준비모임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독립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 외국인은 스코필드 선교사가 유일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파리 강화회의 동향, 조선과 같은 피식민 국가가 받을 영향, 일본에 대한 세계 여론 등을 번역하여 조선의 여러 단체에 전달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서 본국에 조선 사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더구나 개인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3·1만세운동의 학생대표들이 비밀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숙소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갑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 공원 외곽에서 이 중대한 사건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서 세계만방에 알릴 중요한 자료가 될 여러 장의 역사적 사진들을 남겼다.

3·1 만세운동 후 스코필드의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후, 스코필드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전 강의실과 실험실에 학생들 출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자신에게는 가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그는 1919년 4월 13일 일본인이 운영하는 서울프레스(Seoul Press)에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때 일본 경찰이 수원 인근 제암리(지금의 경기도 화성)에서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혐의로 23명의 마을 주민을 제암리 교회에 가두어 불태워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수원역에 내려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제암리 학살현장에 이르렀다. 논을 따라가다가 모서리를 돌아 이미 불타버려 폐허가 된 마을 교회를 목도한 그는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1919년 5월에는 서대문형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화여전 학생 유관순,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노순경, 개성 출신 감리교 신자 어윤희, 가혹한 구타를 당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이애주를 면회한 뒤,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과 정무총감 미즈노 렌타로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그뿐 아니라, 영자신문인 재팬 애드버타이저(The Japan Advertiser)에 글을 기고하여 일본 당국의 잔인함을 비난하고 인도주의적 정책을 촉구했다. 이로써 제암리 학살 사건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어 일본은 제2대 조선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를 해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자행되는 고문이 줄어드는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유관순은 “스코필드 선교사의 활동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고 자신감을 갖게 했다”고 술회했다.

그해 9월, 스코필드 선교사는 극동아시아에 파송된 800여명의 선교사가 모이는 일본 도쿄 회의에 캐나다 선교사 대표로 참석하여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하라 다카시 총리, 가코 다카야키 자작,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등 식민통치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일본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이토 총독은 재팬 애드버타이저에 “한국의 소요 배후에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소속의 스코필드 같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스코필드 선교사의 망명

세브란스의전 에비슨 학장은 스코필드를 즉시 캐나다로 송환하라는 일본의 강한 압력을 받았다. 1920년 스코필드 선교사의 집에 자객이 침입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몇 년 전 캐나다로 돌아간 아내 앤리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면서 그는 캐나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스코필드 선교사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동포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십시오.”라는 작별 인사를 남기고 1920년 4월 몬티글호에 몸을 실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뒤 그는 토론토 대학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 워싱턴 DC로 가서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안창호를 만났고,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26년 개인 자금으로 한국을 잠깐 방문하는 등 조선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아내의 병원 치료와 아들 양육에 대한 책임으로 캐나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955년 정년 퇴임할 때 까지 그는 토론토대학 병리학과장으로 재직했다. 동물 병리학과 세균학에 끼친 학문적인 영향도 특별하여 독일 뮌헨의 루드비히 막시밀리안대,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원한 한국인으로 귀국

정년퇴임 후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요청이 쇄



스코필드(석호필) 선교사 동상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스코필드 선교사 묘소

도했다. 1958년 8월 14일 그는 국빈 자격으로, 3·1만세운동의 몇 명 남지 않은 생존자의 한 명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된 한반도 땅을 밟았다. 1958년부터 1965년까지, 한국인 양자 이영소 박사가 학장으로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의 수의학 및 병리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을 설득하기도 했다. 1961년 5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만난 뒤 의장에게서 받은 희사금 전액을 기부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흥국직업소년학교를 설립하고 집안이 가난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어린 학생 600명에게 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어윤희가 운영하는 〈유린보육원〉과 이경지가 운영하는 〈봉은보육원〉 고아들의 딱한 사정을 미국과 캐나다 수의학 동료들에게 호소하여 스코필드 기금을 조성하여 보육원의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도록 했다.

1968년 79세의 나이로 미국과 캐나다에 모금 여행을 떠나면서 그는 혹시라도 건강이 악화되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책과 재산을 서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불굴의 의지로 한국에 돌아온 그는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으며 임종이 가까운 순간에도 매주 여러 번의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주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1970년 4월 12일 8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스코필드 박사에게 영어를 배운 인연을 계기로 스코필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스코필드 박사에 대하여 “약자에게는 비둘기같이 자애롭고,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기개를 보여주신 박사님의 삶은 힘과 자본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정의와 정직, 그리고 진정한 배려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회고한다. **안남**

편집부

사진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예배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한국 기독교 교계의 더없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성경에도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시킨 지도자들이 솔하게 등장한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를 들 수 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유다의 신앙을 회복시켰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악행으로 실패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시켰지만, 이집트의 누고왕과의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회복의 불씨는 꺼지고 말았다. 그러나 에스라의 회복 운동은 오늘날 유대인의 결혼관, 안식일 준수, 성전 중심의 예배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에스라는 모세의 형 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며, 사독 계열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 오늘날 랍비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더라(에스라 7:10)’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야김 3년, 즉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1차 귀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첫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째 되는 해, 즉 주전 538년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유대인 해방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에 스룹바벨이 1년간의 귀환 준비 약 5만 명의 유대인을 인도하여 주전 537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올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페르시아 제3대 다리오 왕 6년, 즉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다.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늘 적의 위협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유대인들은 주변 이방인과의 결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등 예배조차 회복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은 시들어 가고 있었다. 즉, 예레미야가 예언한 진정한 의미의 새 이스라엘이 회복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2차 귀환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페르시아 제5대 왕 아드사스다왕 7년, 즉 주전 458년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에스라의 인도로 약 1,80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었다. 하나님 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 대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약 4개월의 여정 끝에 2차 귀환을 했다. 아 닥사스다왕의 조서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 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에스라 7:11)’, 그리고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 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에스라 7:25)’라고 되 어 있는 것을 미루어 바벨론에서의 에스라의 위상 을 짐작할 수 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정예 레위인 38명과 함께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

다. 이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하나님과 언 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다짐하며 개혁 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서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그 당시에도 가혹 한 결정을 단행하게 된다. 제사장을 포함하여 고 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아내가 이방 여인일 경우 돌려보내도록 하고 숫양을 드려 속죄 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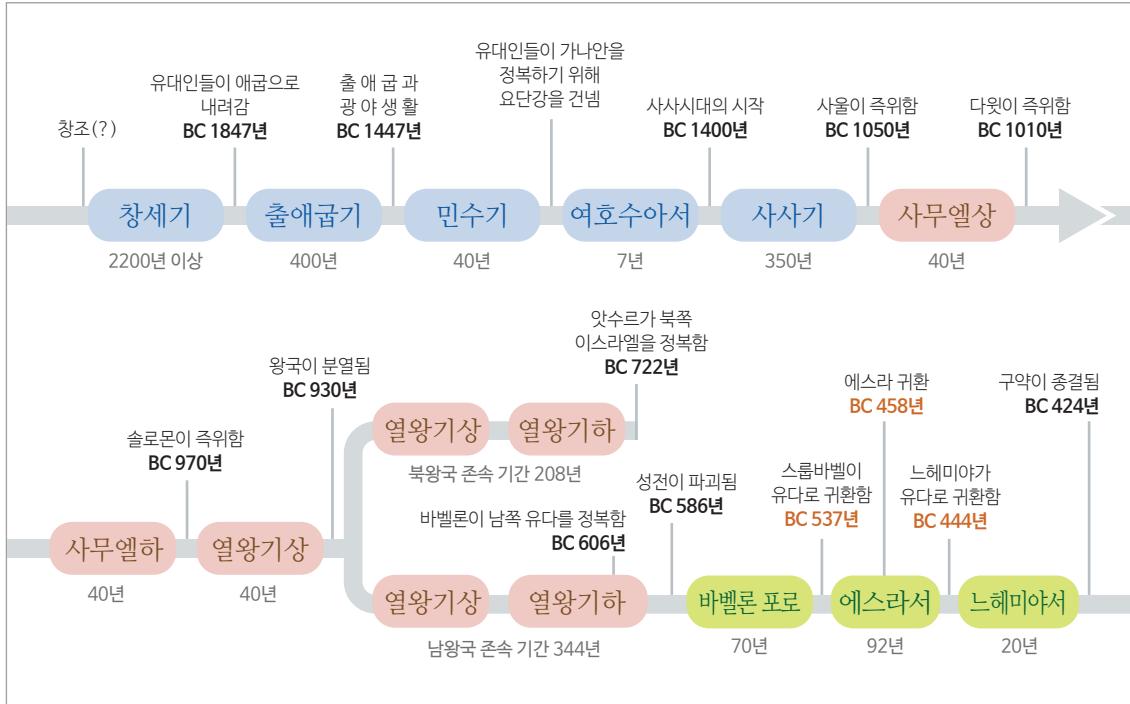
3차 귀환

이후 느헤미야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애통히 여겨,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왕 21년, 즉 주전 444년에 유대인들을 이끌고 3차 귀환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성벽 재건 후,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로



구약의 주요 사건 연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게 하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준 말씀을 밝히 앓이라(느헤미야 8:1~12)’ 기나긴 포로 생활 중에 율법을 접하기 힘들었던 유대인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되었다. 에스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신앙 회복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의 총

독으로 온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오랜 포로 생활의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회복 운동이 중세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재연되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회복 운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었다. 결국 에스라, 루터 모두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고, 이를 통해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고 면 훗날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만남**

안보 위험 대응에 한미동맹 필수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
인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덜레
스 미 국무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조약은 현 한미동맹의
초석이 되었다.

사진 국가기록원

들어가며

요즈음 북한의 부쩍 잣아진 도발로 한반도의 긴
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전 정권에서 친중국 일
변도의 정책과 북핵 대응에 부실한 사이에 북한
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위력을 더욱 키워왔다. 이
러한 시점에 한미협력 강화가 더욱 요구되기에 한
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정치를 전공하지 않은 국
민의 입장에서 최 강대국 미국에게 약소국인 우리
나라가 추진했던 한미동맹의 시작을 중심으로 간
략히 한미동맹의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기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
지고 있다는 확신으로 이 글을 써나간다.

한미동맹의 시작

한미동맹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으로

탄생한 안보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
(brinkmanship)”을 펼쳐 이뤄낸 성과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미국과의 방위조약 체결을 추진했고
1949년 7월 11일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



양인성 장로
용인·화성교구
교사교육부부장

제를 구축하자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애치슨라인’ 발표로 이어졌다. 6·25전쟁 발발 후 이승만은 미국이 전쟁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중국 및 북한과 정전 협정하는 것을 역으로 활용해 1953년 5월 30일 정전협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미국이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만 정전 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극약처방으로 거제도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했다. 이 극약처방의 결과 미국은 이승만이 휴전협정 체결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약속하였으나 그 추진은 만만치 않았다. 결국 미국 국무장관인 덜레스가 1953년 8월 4일 방한하여 이승만과 4차례에 걸친 회담을 했다. 당시 핵심 쟁점은 한국이 침략당했을 때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 명시 여부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양측은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는 수준에서 합의하고 8월 8일 덜레스와 한국 변영태 외무장관이 사인함으로써 가(假)조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승만과 덜레스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0월 1일 워싱턴에서 덜레스와 변영태 외무장관에 의해 정식 조인되고 비준은 1년을 넘긴 1954년 11월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한미동맹의 비화(남시욱 저)』라는 책에서 안보 불안을 느낀 이승만이 동맹관계 수립을 통해 미군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기 위해 추진했고, “한미동맹은 미국의 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요구로 미국이 마지못해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문과 6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외부의 무력 위협에 대한 양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대응을 규정한 제3조와 미군의 한국 주둔 허용을 명시한 제4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 비대칭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953년 체결 당시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힘을 가진 국가 사이가 아니라 최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조약이며 약소국이 원해서 체결된 조약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동맹은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대응에 필수적이다.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이 있는 한 한미동맹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소련-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반도에서 격돌한 6·25전쟁의 산물이다. 지금 한반도는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으로 3개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미동맹과

대치하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의 핵 위협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의 핵 위협은 중차대한 사항이지만, 요즘같이 북한에서 갖은 도발로 우리를 위협해도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생활하기에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그 미래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한미동맹 강화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동시에 중국과 경제 망을 구축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어정쩡한 이중 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하고 경제안보에 변화가 생기며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국익에 부합되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할 사항은 국가의 생존, 즉 안보문제이며 국가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면 경제도 온전하게 지켜 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체제와 가치문제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는 나라 중 누구와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 미중전략경쟁 상황에서 한국은 동맹국 미국과 함께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며

올해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8개월이 되어가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하며 어떤 상호방위조약도 없이 그저 미국과 유럽의 도와주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한 결과가 지금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현재 한미동맹이 굳건히 존재하며 실질적으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과 연일 계속되는 도발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 배치를 극렬히 반대하며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려 했던 전 정권에서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했었기에 국민들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내리는데 단결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한미협력 강화로 연합 방위 태세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합훈련 등을 철저히 공조해 나가는 것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는 없음을 우리 모두 똑바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감히 이 글을 썼다.

끝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믿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만남**

교회주차장 이용이 달라집니다

주일 오전 8시~오후 1시반 새신자,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우선주차



사진 1. 지하 주차장 대기 차량들이 길게 대기하면서 삼일대로 4차선을 가로막고 있음

9월 29일 오이코스 말씀묵상은 야고보서 2장 14~17절이었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는 오이코스 말씀 묵상 중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주차장은 약 280대의 주차 공간이 있는데 주일 주차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2부와 3부 예배 시간은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가 꼭 필요한 분들이 편안하게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양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일마다 서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삼일대로 1개 차선을 가로 막아 교통 혼잡과 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사진 1). 또한 남산1호터널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퇴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뒤엉켜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사진 2). 이로 인하여 주일 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과 영아, 그리고 어르신들도 삼일대로 4차선에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그림 3, 4) 위험해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이를 안고, 짐은 어깨에 메고, 우산을

쓰고 차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는 젊은 어머니의 귀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주일 예배 시간 주차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주일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던 주차방식을 바꿔서, 배려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우선 주차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차 대상자는 새신자, 장애우,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주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는 우선 주차 대상자만 지하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분들은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주일 아침 8시 이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던 일반 성도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는 출차 해야 합니다.

우선 주차 대상자인 새신자는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신자로서 등록 후 3개월간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본 교회 교인으로서 장애인 마크를 부착했을 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우선하여 주차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를 1명 이상 동승한 경우에 가능하고, 노약자는 80세 이상 성도분이 동승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우선 주차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차량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셔야 합니다. 단, 장애우는 우선 주차 스티커를 따로 발급하지 않으며,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인 표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주차 대상자들도 주차 시간은 3시간 이내로 주차를 권장합니다.



사진 2. 지하 주차장 대기 차량이 퇴계로2가 교차로까지 밀려있어서 남산터널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퇴계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만나면서 매우 혼잡한 교통 상황들이 발생하게 됨

〈주일 주차장 이용 방법이 바뀌는 운영 계획〉

기본 방향	모든 성도에게 개방하던 방식에서 배려가 필요한 '우선 주차 대상'을 지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시행 방법	주일 '우선 주차 시간'에는 우선 주차 대상자 탑승차량만 주차 허용 우선 주차 시간: 주일 08:00 ~ 13:30 (우선대상이 아닌 차량들은 08:30까지 출차해야 함) - 사전 교부된 ① 우선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② 우선 주차 대상자를 동반하는 경우만 주차 가능 (①, 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차 가능함)
시행 일자	2022년 11~12월 중 시험 운영, 2023년 1월 1일부 전면 시행
우선 주차 대상자	① 새신자: 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신자(등록 후 3개월간) ② 장애인: 본 교회 교인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 단,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만 입차 가능 ③ 어린이: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 1명 이상의 동승 차량 ④ 노약자: 80세 이상의 성도 직접 운전 차량 및 동승 차량
우선 주차 차량 스티커 발부	기존의 교회 차량등록스티커와 별개로 신청 절차(신청서 양식 별첨)에 따라 행정처에서 「우선 주차 스티커」 발급(장애인은 예외) ① 새신자: 새가족부의 신청한 후 발급 및 전달(유효기간 3개월 사용 후 스티커 반납) ② 장애인: 정부 발행의 「장애인 표지」 사용 ③ 어린이: 교육부에 신청한 후 발급 및 전달(1년의 유효기간 및 매년 2월 초에 새로운 스티커로 교환 발급) ④ 노약자: 80세 이상 성도 본인이나 운전자(자녀 등)가 직접 신청 후 발급 (80세 이상 노약자는 반드시 본 교회 성도여야 하며, 운전자는 제한 없음)
주일 우선 주차 차량 주차장 이용 안내	① 입차 조건: 「우선주차스티커」를 부착 차량에 배려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것을 확인한 경우만 주차장 진입 허용 ② 확인 협조: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창문을 열어 대상자 탑승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함 ③ 주차 시간: 3시간 이내 주차 협조 요함 ④ 주차 위치: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이외의 구역은 자유 주차 ⑤ 공식행사차량: 교육, 수련회, 만남의 날 등 주일 행사로 인해 주차할 시, 1주일 전까지 행정처에서 「임시주차증」 발급 받으면 주차 할 수 있음(전 부서에 관련 협조공문 발송) ⑥ 예외 허용: 일시적인 질병·상해 등의 사유가 있을 시, 행정처에서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으면 주차할 수 있음



사진 3. 삼일대로 4차선 서문 입구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어린이 2명과 어머니



사진 4. 삼일대로 4차선 서문 입구에 정차한 차량에서 내리시는 어르신

특별한 경우는 임시주차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식행사(교육, 수련회, 만남의 날 등)로 주차장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사 1주일 전까지 행정처로 요청하여 임시주차증을 발부받아 사용하시고, 갑자기 혹은 일시적으로 질병, 상해 등의 사유로 주차증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처로 신청하여 주시면 임시주차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올해 10월에는 우선 주차에 대하여 홍보를, 11월과 12월에는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원봉사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남**

자원봉사부



고독(孤獨)

화려(華麗)한 발걸음이 오가던 거리엔
어느덧 깜깜한 적막(寂寥)의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街路燈) 위에 무겁게 깊게 쌓인 밤



육십이 둑을 해로(偕老)하고 고이 잠든 님
남겨 놓고 간 그리움은
어둠과 함께 쌓여만 가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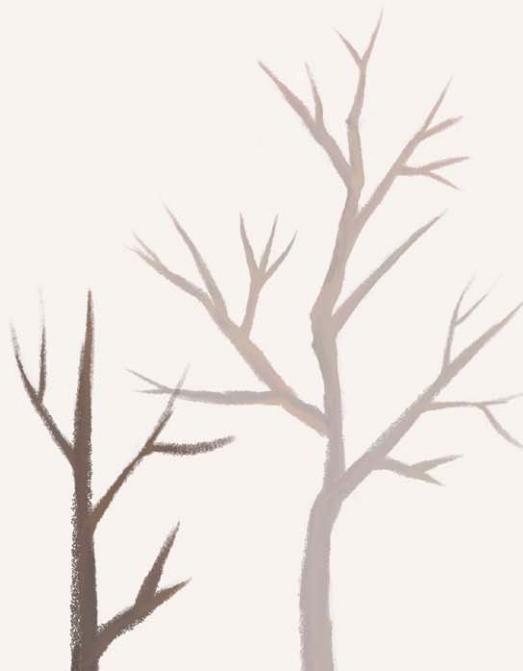
고독(孤獨)의 철저(徹底)한 아픔
슬픔도 잠재우던 자장가는 찾을 수 없고
눈(雪) 내린 밤엔 명든 가슴을 달래는구나



집이 없어 피곤(疲困)하다
낙원(樂園) 동산 생명수(生命水) 마시고
푸른 초원(草原)에서 쉬어가고 싶어라

족(足)한 은혜(恩惠) 앞에 무릎 끓으오니

교만(驕慢)을 밟는 강한 힘을 더해 주소서
온유(溫柔)를 품는 눈을 크게 밝혀 주소서
어떤 가혹(苛酷)한 고통(苦痛)에도
우(愚)를 범(犯)하지 않는 명철(明哲)을 주소서



사랑

당신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는
향기(香氣)로운 반려자(伴侶者)로 세워주소서

노년의 건강관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이다. 노인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80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가파르다. 급성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노력 등으로 인해 보건 수준이 향상되어 평균 기대수명이 현저히 늘어났다. 노년기에는 이전 만성질환의 영향과 노화로 인한 새로운 질환의 발생으로 질병 다발성을 보이고, 노쇠로 인한 생활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났어도 질병이나 장애의 고통을 갖고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건강 수명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가?

1.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노년기에는 암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의한 사망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질병의 원인

이 되는 건강위험인자를 교정해 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금연 및 절주 노력, 고혈압이나 고혈당, 고지혈증의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노년기에는 노쇠로 인한 근육량 감소, 인지 장애, 낙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우울감 등이 문제가 된다. 노년기에는 체중 증가보다는 체중 감소가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자신의 체중을 자주 측정해 보아야 하고, 6개월 사이에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일환 장로
성남·분당교구
의료선교부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영양의 섭취가 중요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성인 표준섭취량의 50% 이상 감소가 있다면 식욕 부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년기 식욕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 활동량 부족, 근육량 감소, 입맛과 후각의 감퇴, 앓고 있는 질병, 저염식의 강조, 경제적 어려움(빈곤), 독거노인의 나홀로 식사 등이 원인이 된다. 균형 잡힌 식사는 무척 중요하다. 물에 밥을 말아서 장아찌나 김치를 반찬으로 먹는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살코기나 생선 등의 동물 단백질, 두부, 두유, 청국장 등의 식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하루 6컵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욕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치의로부터 식욕 촉진에 도움을 주는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필요가 있다.

2. 성인 예방접종

65세 이상 노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은 ① 유행성 독감 ② 폐렴구균 ③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

풍 ④ 대상포진 등이 있다.

●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필수적이다. 유행 예고 2주 전부터 맞기 시작해야 한다. 항체가는 접종 2개월 후에 최고치에 달하고 접종 후 6개월까지 예방 효과가 유지될 것이다. 12월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필수적이다. 현재 23가, 13가 폐렴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23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5년 후 65세가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가 백신을 먼저 맞은 경우는 2개월 이 지난 후에 23가 백신을 추가로 맞을 수 있다.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백신을 맞는 것도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소아기에 기초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3회 백신을 맞고 이후에 10년 간격으로 성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을 맞으면 된다. 세 번 중 한 번은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Tdap)을 맞는 것이 좋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되며,

50세 연령에게도 선택적으로 접종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약독화 생백신은 면역 효과가 60%밖에 미치지 못했다. 새롭게 개발되는 유전자조합 방식의 예방접종 백신은 면역 효과가 90% 정도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하며, 가격이 비싼 편이다.

3. 선별검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 검진은 노인에게도 필요하다. 국가 암 건강검진에서 강조하는 5대 암, 즉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에 대한 선별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각각 질환에 따라 정해진 빈도의 검진을 받으면 된다. 언제까지 암 선별검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국가 암 건강검진 지침에서는 유방암은 69세, 위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74세, 대장암은 80세까지 검진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후 연령도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겠으나, 검진의 효과가 크지 않고 검진으로 인해 받을 수도 있는 위해가 커지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암 검진 이외에도 정기적 혈압 측정, 혈청 지질 검사, 혈당 검사가 필요하며 골밀도검사로 골다공증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우울증,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신체 균형, 근력, 보행 등의 신체 기능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간단히 손의 악력을 평가함으로써 전신 근력을 쉽게 평가 할 수 있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거리를 갔다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보행 기능을 간단히 평가할 수도 있다.

4. 다약제 복용 주의

노년기의 많은 약물 복용이 문제가 된다. 노인들이 평균 3~4가지의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각각의



질환에 대해 여러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받게 된다. 외래 진료를 통해 하루 평균 5~7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십 개의 약물을 복용하는 예도 종종 있다. 다약제 약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치의로부터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조정받는 것이 좋다. 약물 성분의 중복은 줄이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물 등은 복합제 약품으로 바꾸어 복용 약물의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모든 질병의 모든 증상에 대해 일일이 약물 처방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생활기능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약물만을 복용하는 것이 약제 부작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질병의 위험인자를 교정하여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생활기능의 저하(노쇠)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삶의 마지막 시간까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만남**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을 통해 본 기독교와 문화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을 축하하며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는 새로운 문화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전통적인 예배의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상황 속에서 신앙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앙의 표현양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 교회의 존재 방식과 신앙 양식은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기독교문화 형성을 위해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영락미술인선교회에서 준비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전시회를 통해 문화선교의 사명을 함께 고민할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도전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존 스토프 목사님은 기독교에 도전하고 있는 현대의 문화적 풍조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입니다.

다원주의는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주장을 거부하며 선교의 모든 활동을 개종을 위한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이 영적인 삶을 사로잡아 버리는 현상입니다. 세속화 시대는 물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데 반해, 영성은 건강한 삶을 위한 소비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모든 도덕적인 기준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지나친 자기 사랑과 집착으로 원자화되어 고립되거나 자신을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영화, 소설, 드라마, 책, 그림,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산물들이 이러한 세속적 가치를 담고 세상에 전파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도전에 기독교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문화선교의 성경적 토대 : 문화명령

문화선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말씀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8)’.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물질적이고 생물학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뜻한다면, ‘충만하라’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레(מַלֵּא)’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의미의 가득 참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민수기 3:3, 출애굽기 28:41).

‘위임하다’라고 해석된 본문은 문자적으로는 ‘손을 충만하게 하다(מַלֵּא)’라는 뜻입니다. 곧 제사장은 ‘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두 손에 가득한 사람, 하나님 주신 영감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창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왕성한 문화적 창조

와 관련되어 있다면, ‘다스리라’라는 명령은 문화의 형성과 변혁에 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명령은 창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스림’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문화유형론

예일대 교수였던 기독교 윤리학자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을 유형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이 있지만, 니버는 기독교가 세상의 급변하는 문화적 도전에 어떻게 응답할지에 대한 유익한 이정표로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을 제시합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Christ against Culture)’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대립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한일서 2:15)’는 명령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 유형으로 ‘문화에 일치하는 그리스도(Christ of Culture)’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문화를 그리스도와 일치시킵니다. 문화를 통해 발견되는 최선의 가치와 지혜를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서 문화 속에 그리스도를 동화시킵니다. 이 관점에서는 어떤 문화든 거부하거나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Christ above Culture)’는 양극단을 피하여 그리스도와 문화, 둘 다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유형은 이원론적 이해로서 인간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유형은 인간과 인간 행위의 전적인 부패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문화를 변혁시키는데 목표를 둡니다. 문화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문화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변혁자로서의 문화선교

이 땅에는 두 문화와 두 가지 가치체계 그리고 두 기준과 생활방식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세상의 방식이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화 속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문제는 ‘선택’이라기보다 ‘관계 맺음’의 문제 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변혁주의 유형을 지지하는 예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립적이고 전투적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용적 영성을 가진 문화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에 있어서 때로는 문화와 대립하고 떠나고 단절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새 신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익숙한 다양한 문화 형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소개하는 일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죄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부하지만,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는 직장인들이 느끼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 사이의 이중적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고는 대화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 선택해야 할 정답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하고 변화

하는 ‘보다 나은 길’은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변혁은 일방적인 힘과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희생적 섬김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건강하게 관계 맺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를 ‘다스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충만함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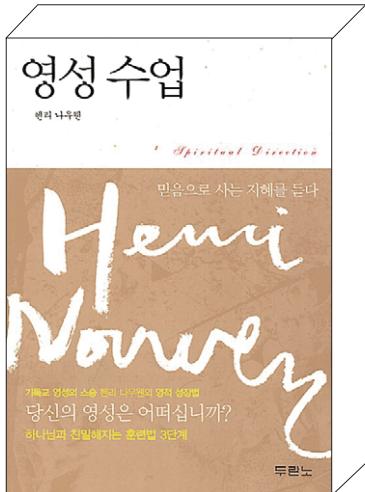
우리는 세상의 충만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빈손을 ‘충만하게(말레, 만날)’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세상 피조물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흔적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려내는 창조의 일을, 저는 감히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창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시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는 따뜻한 사랑의 변혁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조두형 목사
동대문·중랑교구
선교부(군선교, 문화, 청년)

영성 수업



헨리 나우웬 자음 / 윤종석 옮김 / 두란노 /
2020년(초판2007년)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내가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명확한 답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누가복음 3:22)”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광야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영성 수업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여 영적인 삶을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마음의 훈련 2부는 말씀의 훈련 3부는 교회 또는 신앙 공동체의 훈련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만, 긴 호흡으로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읽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소그룹,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읽고 나눈다면 영적인 유익이 더욱 풍성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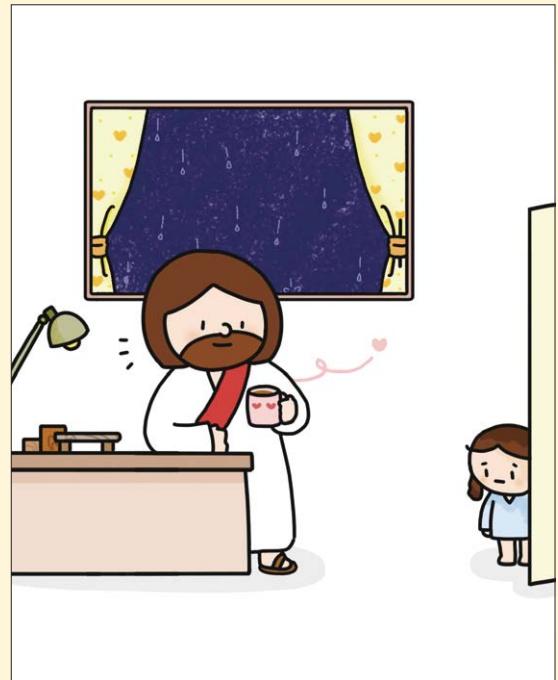
신대군 목사
영락수련원

그냥 더 사랑하라 하십니다



김초롱_ 기독교 웹툰작가
『초롱이는 하나님 바라기』,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
한동대 산업정보 디자인학부 졸업







온 세상 다 날버려도
 주 예수 나 안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찬송가 88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까...

주님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해

에덴동산-생명의 빛

치유되기 힘든 질환으로 인해 인생길에서 큰 절망감으로 신음할 때, 미술을 전공하고 협직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이 “아빠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권유했다. 딸의 권유가 동기



가 되어 당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될까 싶어 붓을 들고 명화, 사진 등을 흥내 내어 그리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같은 환자가 30분 이상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몸이 꼬이고 뒤틀리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는 일은 여타 운동에 비해 좋은 방법은 아니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자유로운 표현과 더불어 상상의 이야기로 빠져들 수 있게 하며, 고통을 잊고 잠시나마 즐거운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리기에 몰입하다 보면 아픔을 넘어 희열을 느낄 때도 가끔 있어 3~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붓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다.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은 집에 침거하던 중 문득, ‘그래, 저기 보이는 거실 화분을 하나씩 그려보자.’ 하는 마음에 캔버스에 공간을 나누어 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했다. 아레카야자, 뱕갈 고무나무, 꽃기린(가시면류관), 산세베리아(뱀의 유혹), 제라늄 등을 캔버스에 그려 넣었다. 그때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임의로 ‘에덴동산’이라 이름 하니 선악과나무, 생명 나무, 열매 맺는 것의 예로 도토리, 씨 맺는 것, 그리고 구원선(방주)도 그려 넣는 등, 캔버스 공간에서 만큼은 내 마음대로였다. **만남**

장순재 장로_서대문·은평교구



오래 참음(갈라디아서5)

제57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 출품작
서동희 은퇴권사, 47×25×25cm, 도기, 2022년

9월 만남주일…‘건강하게 다시 만난 반가움’



지난 9월 25일(주일) 교회 광장에서 만남주일 행사가 있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3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깨고 열린 행사로써, 18개 교구의 각 만남의 장소에서 열린 큰 축제였다. 목양부(부장 지동춘 장로)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는 간증주일의 명칭이 만남주일로 바뀌면서, 좀 더 깊은 행사

의 의미와도 부합되고 있다. 3년 만에 만나는 교우들과 만나 뵙기 어려웠던 어르신들, 어린이들과의 만남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과의 만남을 연상케 했다. 서로 깊은 포옹을 하며 반가워 하는 모습은 바라보는 이들도 미소 짓게 하는 장면들이었다. 이는 3년 동안의 수면 속에서 훌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데

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했으며, 각 교구의 목사님과 만나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맛난 간식을 준비한 손길에게도 무한 감사를 갖게 했던 귀한 행사였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본당 앞 LED 전광판 개통

본당 앞에 스마트LED전광판이 새로 생겼다. 기존 게시판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LED 전광판은 IT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주목된다. 가로 7.5m 세로 1.5m의 이 LED전광판은 김덕윤 은퇴권사(사진 가운데 앉은 분·신은정 장로 시모)가 기증한 것으로, 앞으로 교회 행사 광고,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여정,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 등 선교 자료 등을 올려 우리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께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9일 주일 5부 예배 후 열린 전광판 개통식에서는 김운성 위임목사가 김덕윤 권사와 전광판을 제작한 주봉 정보시스템에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하고 이어 테이프커팅



식을 가졌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와 선교부가 전광판에 담길 내용들을 적극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통식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경직 목사님 영상과 김덕윤 은퇴권사가 “후배들이 더 많이 헌신하기 바란다”고 말하는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며 기뻐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설경문 집사

시온의 시편 - 시편 낭송과 찬양이 있는 <시편예배>

지난 10월 1일(토) 오후6시 선교관에서 음악부(부장: 김성현 장로)가 주최하고 시온찬양대가 주관하여 시편을 주제로 '시편을 쓰다. 시편을 노래하다' 부제를 달고 7개국어 시편낭송과 찬양이 있는 <시편예배> 음악제가 열렸다.

음악회는 김충섭 목사의 기도로 시작하여 첫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의 감사 연주 후, 찬양대에 첫발을 딤은지 4개월 되었다는 김다은 양이 창작 시편 151편을 낭송해 감동의 무대를 펼쳤다. 이어 시편 곡들은 해금, 플룻, 바이올린 등의 아름다운 선율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7개국어(히브리어,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이태리어, 한국어)로 시편 1편, 23편, 27편, 43편, 57편, 63편, 91편, 121편, 150편의 시편 고백을 통해 관객들에게 마치 천사의 속삭임 같은 울림을 주며 은혜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찬양대장 차재능 장로는 김충섭 지도목사와의 경건회 때, 시편강의를 들으며 대원들이 시편 필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경험이 계기가 되어 찬양하며 이 음악제를 열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전도 캠페인

전도 행진 365

10월 16일(주일) ~ 11월 20일(주일)

#가족에게로 '가족전도'

#이웃에게로 '관계전도'

#하나님께로 '예배로의 초대 : 11월 20일(주일)'

대한예수교
정로회
영락교회 | 전도부

영락미술인선교회 정기전 인사동 <이즈>에서 열려



〈영락미술인선교회〉 제 16회 전시회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2022년 10월 19일(수)부터 10월 24일(월)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37명의 회원들이 회화, 서예, 조소, 도예 등 여러 미술분야의 작품들을 출품했습니다. 회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화폭과 입체에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중단되었던 오프라인 전시가 선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영락미술인선교회는 영락

교회 교인으로서 시각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려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미술인들의 모임입니다. 매년 교회내에서의 전시와 일반 갤러리에서도 전시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재능기부를 통해 국내와 해외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전시 후 속초더함교회 갤러리 까페에서 10월 29일부

터 11월 30일까지 2차 연장전시를 할 예정이고,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1층에서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성탄절 특별전을 할 예정입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성도분들에게 작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 영락미술인선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활동 하실 미술인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제공 선교부 문화선교 영락미술인선교회

영락탁구스포츠선교회(영탁스) 새문안교회에서 초청한 대회 참가

영락탁구스포츠선교회(회장 김형태 안수집사)는 지난 10월 1일(토)에 새문안교회가 창립 135주년기념으로 개최한 '제13회 담임목사기 교구대항 및 인근교회 초청 탁구 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탁구대회는 새문안교회 지하2층 언더우드홀에서 영락교회와 영은교회, 농아인교회, 예능교회, 온누리교회, 새문안교회 6개팀이 초청되어 3복식 3셋트 풀리그전 경기로 시합을 진행했으며 영락교회가 교회 단체전 우승을 하여 이



상학 담임목사가 우승패를 시상했다.

제공 영락탁구스포츠선교회

영락사회복지재단 창립기념감사예배



2022년 10월 1일(토) 영락교회 소강당에서 사회복지 사업 83주년 재단창립 65주년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님들과 후원자, 봉사자, 시설 직원, 많은 내빈이 이 자리를 빛내주셨고 “은혜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 시

설장님들의 멋진 특별 찬양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역사를 함께한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 직원을 표창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

기도 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영락사회복지재단이 발전하고 커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교우동정

김순미 장로,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이사장 취임

김순미 장로가 지난 10월 11일(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날 김 장로는 기도로 헌신하고 사명을 실천해 나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김순미 장로는 기독교 여성 지도자로서 총회 및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단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며 2019년 여성 최초 총회 부총회장에 선출되어 헌신의 리더쉽을 발휘했다. 김 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부총회장, 총회 여성위원장, 교회동반성장위원장, 선관위원장 중재기도원장, 훈련원 부이사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부이사장,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이사, (사)솔리데오 이사장 등으로 헌신하고 있다. 총회한국교회연구원은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여 학술적으로 지원하고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연구 기관이다.

앞서 김 장로는 지난 6일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열린 〈개교 10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식〉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11월 목회력

4일(금)	구역활성화 심포지움
5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6일(주일)	찬양예배 성찬
13일(주일)	한경직기념사업회 시상식, 제직회
14일(월)~19일(토)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회
20일(주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연합찬양예배, 새가족환영회, 다음세대 기도회
27일(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창립기념 음악예배, 사회봉사주일, 원포인트 교육주간

※ 11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색칠하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으나 까지 찾으다니 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 4)



2022년 11월호 통권 585호

발 행 2022. 11.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 열 계영희 이광미

발 행 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 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www.youngnakmn.net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월간 '만남' 웹진



월간 '만남' 앱
안드로이드용



월간 '만남' 앱
아이폰용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제자이름 맞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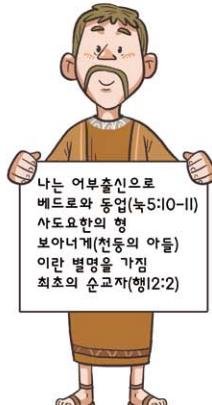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이름이 빠진 제자들의 설명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이름을 써주세요.



베드로



안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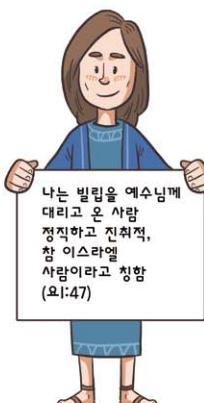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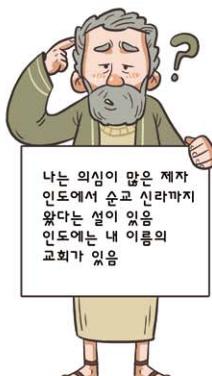
요한



빌립



()



()



마태



알파오의아들
야고보



()



가나안인
시몬



가룟유다

영락화랑

에덴동산-생명의 빛



장순재, 60×50cm, Oil on Canvas, 2021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에베소서 5:8)